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노인의 성을 잘 가꿔갈 수 있도록

한겨울 추위가 매섭다. 경제도 정치도 불안하기 때문에 더 그런 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이 무려 24번이나 경제를 되뇌었다. 신년회 장소도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로 정했다.

이런 외경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한기는 더욱 크다. 때문에 전향적인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절감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현 시류의 특성상 고립무원인 경우가 많다.

즉, 진통사회에서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인들의 농사경영상, 육아법 등이 젊은이들의 추종을 불허했다.

뿐만 아니라 바깥 경제권은 남

자노인, 안방 경제권은 여자노인의 전유물이었다. 거기에다 노인 존중사상도 강했다. 때문에 젊은 이들은 노인들에게 예측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4차 혁명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같은 노인들의 전유물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때문에 교환까지 또한 급락할 수밖에 없다.

흔히 노년기를 상실의 시대라 한다. 많은 것들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행복한 삶을 구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들 중의 하나가 성문제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경우 심각한 성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왜곡되어진 성이 부적절하고 불협

적인 문제까지 발생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을 돌봐주는 요양보호사에게까지 성추행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각각색의 성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성병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각종 통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몇 년 전 서울대병원의 65세 이상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인에게도 성생활이 중요하고 그에 찬성한다는 생각을 가진 노인이 66.35%나 되었다. 그렇게 응답한 노인들 중 51%는 실제로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노인들의 약 2/3가 성생활을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실은 노인의 성을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성폭행 가해자들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큰일이

다.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인들 스스로 성 담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노인 가족 및 주변인들의 노인의 성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의 자세를 거둬들여야 한다. 셋째, 노인의 성도 젊은이의 성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런 삶의 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노인 성관련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렇다. 노인들에게도 규칙적인 성생활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섹스를 하면 남성노인에게는 고환을 경의 퇴화를 막아주고 여성에게는 골다공증을 예방해준다.

또한 뇌의 진두염을 자극해서 뇌의 노화, 치매, 건강증 등의 진행을 억제시켜주는 물론 산소의 이용률을 증가시켜서 심호흡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함은 물론 신체 내에 다양한 이로운 불질을 증가시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노년의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노인의 성을 잘 가꿔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보자. 우선 자신의 노부모님부터.

社說

도박 중독에서 청소년 구해야

청소년 100명 중 6명꼴로 도박 중독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 도박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중독 위험 인원은 올해 14만명을 넘어섰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중1~고2 청소년 1만 7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청소년의 6.4%가 도박 문제 위험 집단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미 도박에 빠진 문제군은 1.5%, 위험군은 4.9%였다. 문제군은 2015년과 비교해 0.4% 포인트, 위험군은 0.9% 포인트 늘었다. 올해 기준으로 문제군은 3만 4000명, 위험군은 11만 1000명으로 추정됐다.

평생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47.8%였다. 2015년보다 5.7% 포인트 늘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자주 한 돈내기 게임은 인형이나 곱풍을 뽑는 '뽑기 게임'(53.9%)이었다. 이어 '스포츠 경기 내기'(15.6%), '카드·화투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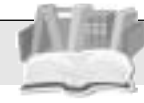
(11.2%) 순이었다. 사다리, 달팽이 등 온라인 내기 게임'을 하는 비율은 3.0%, 블랙잭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 비율도 1.0%였다. 온라인 내기 게임과 불법 인터넷 도박 경험률은 증가세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내기 게임에 평균 25만원, 불법 인터넷 도박에는 평균 40만원을 쏟아부었다. 전체 평균 돈내기 게임 사용액 3만 4000원의 7~12배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온라인 돈내기 게임 이용자의 74.2%는 '스마트폰을 이용했다.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고 도박 문제를 심각하게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복권, 경마 등 연령 제한으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사행산업을 경험한 비율도 3.8%나 됐다. 청소년의 58.7%는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 물고 있는 청소년이 올바른 정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男 새 남 男效才良
效 본받을 효
才 재주 재
良 어질 량

▷ 뜻: 남자(男子)는 재능(才能)을 닦고 이진 것을 본받아야 함을 말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나도 모르게 '일산화탄소' 중독...예방법은?

겨울철이 되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각종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의식불명 등 위중한 상태로 긴급 이송되는 기사가 종종 접하게 된다.

지난 18일 안타가운 사고가 있었다. 강릉으로 내려갔던 10대 10명이 펜션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3명이 숨지고 7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일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화합물로 화학식은 CO이다. 일산화탄소는 무서운 것은 무미, 무취, 무색이라는 것이며 심지어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도 없

어서 중독 초기에 알수가 없다. 일산화탄소가 인체에 해로운 이유는 호흡으로 폐에 들어가면 산소보다 혈액색에 21배 강력하게 결합을 한다.

따라서 인체는 산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내질식 상태가 된다.

그래서 가벼운 중독의 경우에는 두통, 구역정도지만 심하게 중독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기중 CO농도가 0.02%인 경우 경한 두통이 2~3시간마다 오고 0.04%이면 진두통과 오심이 1~2시간만에 오고 후두통은 1.5~3.5

0.08%가 되면 두통과 현기증을 느낄 때까지 45분이 소요되고 12

시간이 되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다.

0.16%인 경우에는 20분안에 두통과 현기증이 일어나고 2시간이 지나면 사망의 위험이 생긴다.

0.64%가 되면 두통과 현훈이 1~2분안에 오고 10분~15분이 지나면 사망하게 된다. 1.28%일때는 자각의식불명과 1~3분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첫째 평소 집안의 보일러나 난방기에서 불완전연소기스가 새지 않는지 사전점검을 한다.

둘째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킨다.

셋째 배기 연통 부가 이탈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찌그러져있거나

꺼여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넷째, 일산화탄소를 일정한 제거한다는 돈나무 같은 공기정화 식물들을 설치하거나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다.

또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구급대 도착 전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제공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머리를 낮추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유지하며 호흡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는 신속히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선호 / 나주소방서 소방장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